

7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지역농산물로 전통식품 만드는 정병준 대표

송고시간 | 2022-07-21 11:07



북하특품사업단이 제조해 판매하는 절임류 제품
[농림축산식품부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기자 =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전남 장성군의 농업회사법인 '북하특품사업단'(주)의 정병준 대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.

북하특품사업단은 연간 약 120t(톤)의 콩, 고추, 갯잎 등 지역 농산물을 조달해 된장, 간장, 고추장, 장아찌 등 40여종의 전통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다.

지역 농가와 15년 이상 계약 재배를 통해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식품안전경영시스템(ISO22000), 식품안전인증제도(FSSC22000), 할랄인증 등 국제인증을 획득해 제품을 미국, 호주,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.

정 대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또 얼음 팩, 완충제, 테이프 등 포장재를 전부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1인용, 선물용, 업소용 생산 라인을 따로 구축해 급변하는 식품 소비 환경에 맞춰가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.

정 대표는 "우리 전통 식품의 장점을 살려 세계인의 입맛을 매료시키고 브랜드화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younglee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2/07/21 11:07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